시리즈 7 인도자용 (Leader's Guide)

가정공동체 말씀 Family Community

신앙여정

박선규 목사 저

Faith Journey

Geneva Press



부르심

성 경 본 문 사무엘상 16:1~13

요 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7절).

이 과의 목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숙고한 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

▶ I. 생각하기

1. 당신이 고용주의 입장에 있다면 직원을 선발할 때 어떤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과 및 왜 그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나누어 보게 하자. 이러한 생각 훈련은 고용주 혹은 직원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하게 해주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을 선정할 때 어떤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항목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것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도록 하자. 아래 생각 넓히기 항목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조정하거나 확장하고 정리할 수 있는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 Ⅱ. 생각 넓히기

- 1.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은 다윗
- 2.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 3.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다윗

> Ⅲ. 생각을 삶으로

1.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기뻐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마음이 부정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만날 때까지 현재 행하고 있는 일들을 가식이나 꾸밈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행해보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그릇에 비유하면서 불의한 것들에서 깨끗케 하는 자들, 즉 마음이 깨끗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가르쳐 준다(딤후 2:20-21 참조).

2.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르심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도 있고,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 지 물어보자. 자신의 힘이나 능력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며 행하는 훈련을 하도록 권면하자.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행하고 있는 일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것이다. 또한,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지 물어보자. 비록 그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지라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히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며 행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자.